

### 조계종 스리랑카 복지타운

# 3월 5일 첫 삽 뜨다

#### 내년 3월 준공...고아원·유치원 등 12동 들어서

스리랑카에 한국불자들의 온정이 조계종마을에 이어 다시 한번 전해졌다. 지진해일 쓰나미 피해성금 20여억원을 들여 대규모 복지타운을 건립하기 위한 첫 삽을 뜬 것. 조계종은 3월 5일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 인근 파살라 지역에 마련된 부지에서 스리랑카복지타운 착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를 위해 한국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고 불총림 유나 지선, 종회의장 법등 스님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 100여명이 스리랑카를 찾았다. 현지에서도 최대종단 아스기리야 라사나파파 종정, 무역부 장관 등 300여명이 참석

해 착공식을 지켜봤다. 지관 스님은 "스리랑카복지타운은 대한민국 불자들의 따뜻한 마음과 재산을 극복하려는 스리랑카 국민의 강한 의지가 합쳐진 결과"라며 "자연재해로 희망을 잃은 어린이에게 꿈을 심어주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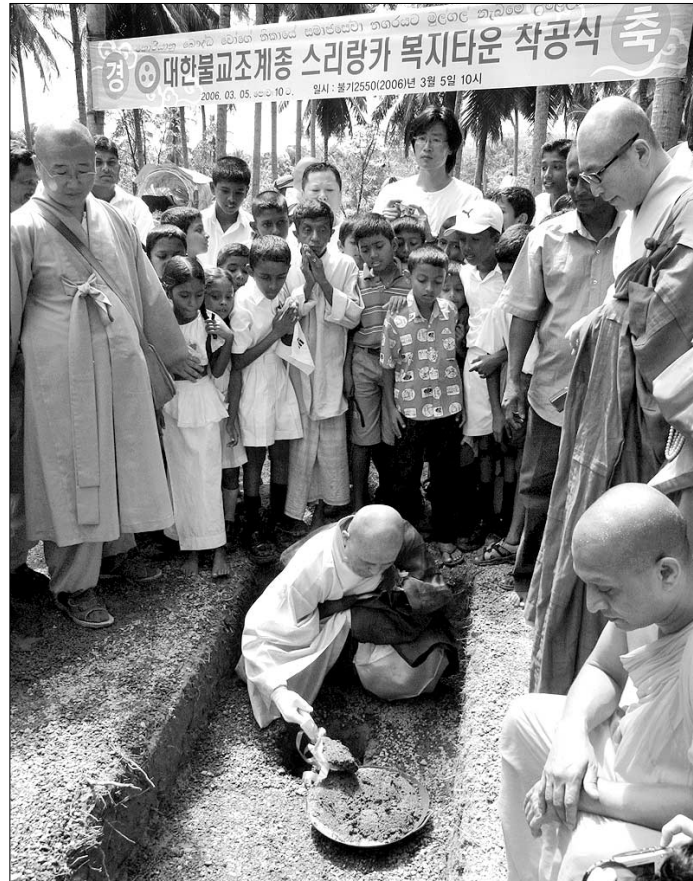
내년 3월께 완공될 스리랑카복지타운에는 2만 5천명의 부지에 아동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고아원과 유치원, 종합관리관 등 12동의 건물이 들어선다. 시설에서는 아동보호, 특기적성교육, 종교교육, 상담 및 치료 활동이 이뤄지며, 한국에 파견될 스리랑카 노동자들을 위한 한국어와

한글 교육이 병행될 예정이다. 운영은 조계종과 스리랑카 불교계로 구성된 현지법인 한·스문화사회복지재단이 맡는다.

한편 대표단은 착공식에 이어 6일 마하나 라자팍세 스리랑카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국과 스리랑카간 교류 증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라자팍세 대통령은 "지난해 한국을 방문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은 바 있다"며 한국불교와의 인연을 소개하고, "복지타운의 원만 회향을 위해 스리랑카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지관 스님은 내년 3월로 예정된 복지타운 준공발표회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스리랑카 전통의 시삽의식을 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조계종 총무원

## 봉축 '자비나눔' 행사 다채

#### 연꽃달기·난치병 어린이 위한 3천배 법회 개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조계종 사회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중앙신도회 등이 '나눔'을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

조계종 사회부는 '자비연꽃 달기 운동'에 나선다. 봉축기간동안 연꽃모양의 금도금 뺨지를 개당 1천원씩에 판매하며, 동참금은 '자비나눔 기금'을 통해 재난구호 활동과 어려운 이웃 돕기에 사용된다. (02)2011-1820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도 난치병 어린이가 살리기를 위한 정진기도 법회를 4월 15-1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시행한다. 난치병 어린이가 살리기 정진기도 참가자들은 1배당 100원씩 모금하는 3천배 기도를 올리게

된다. 4월 18-19일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복지시설 장애인들을 위한 세상나눔이 준비돼 있다. 평소 거동이 불편해 바깥 외출을 자주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도움을 받아 나들이를 떠난다. 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4월 중순 북한 장애인에게 휠체어 360대를 전달하기 위해 방북, 조선불교도연맹측에 이를 전달해 '나눔'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02)723-5101

중앙신도회 역시 '이웃을 위한 희망의 등달기' 운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연등을 전달한다. (02)733-7277 이은비 기자

## 'SOS 새만금' 시위 봇물

#### 수경 스님 도올 김용욱 등 현장서 시위

끝물막이 공사를 앞두고 있는 새만금을 살리기 위한 목소리가 각계에서 봇물처럼 쏟아지자, 한국농촌공사측이 새만금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의 대법원 판결 직후인 3월 17일로 공사일정을 앞당겼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과 도올 김용욱씨의 3월 6일 새만금 방조제 현장 시위로부터 시작된 집중시위는 광화문 촛불집회와 수경 스님의 천막농성, 전북지역 5대 종교 성직자 단식농성, 각계가 참여한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2220인 시국선언, 새만금 총집중의 날 현장시위 등으로 번졌다.

또 2000년부터 5년 동안 새만금개발에 대한 생태조사를 실시해온 환경운동연합과 한일갯벌조사단은 새만금 갯벌에서 원목류에 기생하는 조개 등 4종의 신종을 비롯한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생물 9종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수경 스님 등은 "끝물막이 공사가

시작되면 새만금 연안의 수많은 생명이 죽는 환경재앙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정부와 전복도는 시화호 사건을 반민교사 삼아 최악의 상황만은 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반대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자 한국농촌공사와 시행업체인 현대건설, 대림건설 등은 끝물막이 공사를 앞당겨 시행기로 했다. 이를 위해 피해어민대책위원회의 집회 직후 새만금 방조제 입구를 돌방태를 이용해 완전히 봉쇄했으며, 방조제 공사현장 주변에는 어민, 환경단체 등의 진입을 막기 위해 철조망을 설치했다.

그러나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는 새만금 끝물막이 공사 저지와 새만금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홍보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새만금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박봉영 기자

### 불자 할머니, 평생 냉차팔아 모은 돈

## 1억1천만원 동국대에 쾌척

독실한 불자인 한 할머니가 냉차, 버스표 판매 등으로 평생 모은 1억 1천만원을 조계종립 동국대에 쾌척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서울에 사는 불자라고 밝힌 이 할머니는 71세의 고령임에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최근 동국대를 방문, 현금 1억 1천만원을 직접 전달했다. 이 할머니는 "나는 비록 배우지 못했지만 젊은이들은 부지런히 배워

야 한다"면서 "1억원을 장학금으로 내놓을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할머니는 또 "몸이 불편한 불자들을 치유하고 있는 일산불교병원 개원소식을 듣고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면서 "병원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추가로 1천만원도 기탁했다.

동국대측은 이러한 할머니의 뜻을 기려 장학기금을 운영하기로 했다.

남동우 기자

### 백남준 고국 품으로

#### 18일 봉은사서 49재

1월 29일 미국에서 타계한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이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혜)는 3월 18일 오후 5시 30분 백남준의 49재 '백남준 고국에 돌아오다'를 연다. 이번 49재에서는 한국·미국·독일 3국에 분산 안치될 것으로 알려진 고인의 유분 일부가 백남준의 조카 권 백하루다씨에 의해 전달될 예정이다.

49재에서는 백남준이 퍼포먼스의 소재로 즐겨 사용했던 바이올린 부수기, 피아노 뒤엎기 등이 재연된다.

또 백남준의 유자 '엄마'가 일반에 공개된 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된다. (02)511-6071 이은비 기자

### 불교 생태학 학술발표

#### 보조사상연구원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3월 18일 오후 2시 동국대 다량관에서 불교생태학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최동순 동국대 교수와 김치은 동국대 강사가 각각 '경덕전등록'에 나타난 생태관'과 '불살생에 관한 생태문화적 일고찰'을 주제로 발제하고, 윤기억(연세대), 김미숙, 황금연(이상 동국대), 문윤식(서울산업대) 교수가 논평한다. 노병철 기자

## 불교학·동양학·인문학 전문서 풍부

#### ■ '중성문고'엔 어떤 책이?

3월 9일 현대불교신문사 사옥내 문을 연 '중성문고'는 불교계에서 최초로 도서를 기증받아 설립된 사설 문고이다. 특히 서울 스님의 인가를 받은 중성(1930-2004) 스님이 평생 외형적인 불사를 자제하고 인재발사에 매진했던 성과물이자, 고인의 '사리탑'이기도 하다.

조계종 종정을 지낸 성철 스님이 생전에 해인사 강원에 불서를 5천 여권 기증한 사례가 있었지만, 도서의 양이나 질적으로 1만5천여권이라는 방대한 면에서나 그리고 사찰이 아닌 신문사에 도서를 기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해 문서포교에 전념하길 열원한 중성 스님의 유지가 갖는 뜻깊은 불사(佛事)로 평가된다.

'실참(實參)을 겸한 선리(禪理)의 탐구'라는 중성 스님의 유지를 답아 불자와 시민들에게 개방된 중성문고는 일본어 2천900여권, 중국어 1천400여권, 영어 600여권을 비롯한 1만2천800여권과 분사 소장도서 등 1만5천여 권의 장서로 구성되어 있다. 소장도서의 내용 역시 다양해서 불교관련 도서 이외에 인접학문인 동양학, 인문학, 문학 서적 등이 구비되어 있어 교양도서관으로도 손색이 없다.

특히 한·중·일·남편 대장경과 선행 관련 자료는 일반대학 도서관 이상의 귀중한 자료들을 갖추고 있어 스님과 불교학자들의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한글 대장경>(동국역경원)은 물론 <속장경>(홍콩 불서출판공사), <대정신수 대장경>(대정출판사), <남



중성문고를 둘러보는 임재선원 불자들. 사진=박재원 기자

전 대장경>(대정출판사), <불광대장경>(불광산출판사), <팔만대장경 해제>(북한 사회과학출판사) 등 불교사의 중요 전적을 망라하고 있다.

아울러 100권에 달하는 <선종전서>(문수출판사)와 46권에 달하는 <선장>(불광대장경연구소), 각각 24권에 구성된 <정법인장>과 <정법인장 전강>(대법출판사), <선학대계>(전 8권·선학대계편찬국) 등 선종의 모든 문헌을 빠짐없이 집대성하고 있다.

이밖에도 문학, 역사학, 동양학, 역사학, 사진류 등 다양한 장르의 도서들은 인문학 연구의 풍부한 기초 자료로 제공된다. <한문대사전>(전 20권·보경문화사), <한문대계>(전 20권·민족사), <세계 백과 대사전>(전 20권·교육도서), <망월불교대사전>(전 10권·세계성전간행협회), <대동야승>(전 8권·동서강목>(전 10권) 등 민족문화추진회의 '고전국역총서', <한국의 사상대전집>(전 24권·동화출판공사), <한국 문헌 선평전집>(전 10권·한국문화연구소) 등의 목적인 전집류가 불교학 및 인문학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02)2004-8261 김재경 기자

※ 미등록 된 전국 회원은 본 총원(총무원)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4동 138-5호 2층  
전화 02-720-3661~2  
FAX 02-720-3578

## 社團法人曹溪淨土佛教總院

外職員 一同

理事長 .. 李法賢  
理事 .. 慧山  
理事 .. 商言  
理事 .. 普光華  
理事 .. 性天  
監查 .. 聖岩  
監查 .. 法珍  
事務局長 .. 洪大成  
事務課長 .. 法山  
弘報課長 .. 泰奉

## 社團法人曹溪淨土佛教總院 任員公告